

## 찬성측 불참에 김 빠져버린 WCC 실체 찬반 토론회



강연을 마치고 인도와 헌신의 시간을 가진 닉은 강단 앞으로 모여든 수백여 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다.

“WCC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8일 서울 연지동 한국 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독교사상연구원(원장 최덕성 박사)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WCC 부산 총회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종교다원주의와 교회론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서 모처럼 찬반 양측이 서로 입장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간 WCC 찬성·반대측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 WCC 찬반 양론이 함께 토론했던 적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례없이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는 등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WCC측 입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던 이형기 명예교수(장신대)가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더 큰 논란을 낳게 됐다. 이 교수는 이를 전인 6일 이메일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기 교수는 불참 이유로 “교단 내 여러 분들이 여러 정보에 근거하여 포럼에서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찬반 입장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지만, 이 교수의 불참으로 쌍방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형기 교수의 발제문은 신원균 개혁신학포럼 학술위원이 대독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교수는 이 발제문에서 “WCC에 대한 신학적 오해와 이해”를 제목으로 WCC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 따르면 20세기 WCC 운동은 역사적인 공의회 운동 혹은 협의회 운동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의 교회일치·사회참여·세계선교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협의회적 친교를 통해 ‘진정으로 연합한 지역별 교회들’로 하여금 보편교회를 지향하게 했다. ▶9면에 계속

## 닉 부이치치 “미국의 미래, 한인 청년들 손에”

KYVC 주최한 집회에 1천여명 2세 청년, 청소년 참가 성황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특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팔과 다리는 없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복음전도자 닉 부이치치(Life without Limbs 대표)가 남가주한인 청소년비전센터(대표 김영길 목사, 이하 KYVC)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1천여 EM 청소년, 청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전했다. 6일 감사한인교회에서다.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을 앓고 사지 없이 태어난 닉은 역경을 이겨내고 전세계 수십만 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그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미국인들은 물론 10세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한인 2세, 학부모, EM 사역자들이 대거 참석해

감사한인교회 1.2층 예배당 좌석을 가득 채웠다.

유럽 집회를 막 마치고 도착한 닉은 비록 팔과 다리는 없지만, 온 몸을 흔들면서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가감없이 전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며 직접 목격한 기적을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발뚝 일어나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듯, 동일하신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삶의 소망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10대들에게 “돈과 마약, 알콜, 섹스 등은 진정한 삶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 팔·다리 없는 나를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성경 속에 구체적인 매뉴얼이 다 나와 있다. 인생의 목적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청년들이 되리”고 권려했다. 그러면서 “남가주에 1천여 한인 교회들이 있다. 이곳에 여러분과 같은 한인 2세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도전하기도 했다.

열린 강연을 마친 닉은 “예수님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자”면서 초청과 헌신의 시간을 인도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팔 다리 없이도 예수님으로 행복해 하는 닉의 모습에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한나 기자

##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담임목사 첫 예배 드려

남가주사랑의교회 제3대 담임인 노창수 목사가 지난 7일 주일예배에서 첫 설교를 함으로 사역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2부 예배에서 남가주사랑의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노창수 목사와 노미영 사모의 새로운 목회 여정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잠 25: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노목사는 제3대 담임으로 부임한 소감을 밝히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 사역을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노 목사의 공식 취임예배는 오는 21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다.

정한나 기자

## 기도로 통일 앞당긴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주빌리 구국기도회’가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은혜한인교회 세계기도센터에서 열린다.

이 기도회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은혜한인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2004년 부흥한국과 서울 사랑의교회 대학부가 주최한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이 그 효시다. 현재는 통일선교단체들이 대거 합류해 국내 각지에서 매월 한 차례 열린다.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시작됐고 곧 호주, 일본, 시카고 등지에서 출범한다. 주최측은 이번 기도회에 대해 “앞으로 풀러튼 지역뿐 아니라 남가주 전역에 걸쳐 범교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소를 제공하는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는 “(이 기도회를 통해) 한인사회에 통일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알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한나 기자

## 대학생들의 합성,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지다



KCCC가 개최한 USA-Sports Day에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했다.

뜨거운 패기를 가진 대학생들의 합성이 가을하늘을 수놓았다. 지난 6일 오전 8시 캘스테이트대 통비치캠퍼스에서는 KCCC의 26개 대학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젊음을 마음껏 발산했다.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축구, 농구, 줄다리기, 프리스비, 계주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이 마련됐다. 2개의 캠퍼스 리그로 나뉘어진 이 대회에서 UC산타바라와 캘스테이트대 풀러튼캠퍼스가 우승했다. 토마스 맹 기자

###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o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 TAX 문제 전문

자산통계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시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C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일일보/인타넷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사(아메리카) 선정]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 기부천사 김장훈이 선택한 아이토크비비!

### 즐거라! 무제한 통화!

지금 가입하시면  
**1개월 무료!**

행사기간  
**2012년 10월 15일 까지**

[30% 환율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친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글로벌 플랜**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24.99/월**

---

**무료 부가서비스**

아·이·토·크·컴  
**iTalkM**

드디어 나왔다 iTalkM!  
 스마트폰으로 접속번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국제전화를

마이코리아넘버 My Korea Number\*\*  
 한국 070 전화가 필요없다!  
 나만의 한국 전화번호를

아·이·토·크·비·비  
**iTalkBB**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게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필수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재차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할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율보조를 위해 종이 영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 965 월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마트내 매장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통화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지성소에 나아가기 힘써 은혜의 통로 되길

# 갈보리민음교회 강진웅 목사 취임

### 은혜와평강교회 5대 담임 곽덕근 목사 위임예배 거행

### 오는 11월 4일 공식 취임예배



곽덕근 목사

노스힐스에 위치한 은혜와평강교회가 5대 담임으로 곽덕근 목사를 세우고, 위임예배를 7일 오후 5시에 거행했다.

곽덕근 목사는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고 특별히 기도와 정성으로 낳은 아이가 셋째 수경이다. 그래서 셋째를 키우는 지금까지, 특별한 아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고 전하며, “우리 성도들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스페셜’한 얼굴값을 하고 살아야 한다. 성도들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와도 말씀으로 상담하고 은혜와 평강을

전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듯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스페셜’한 목회자가 되길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답사했다.

이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디모데전서1:12-17)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곽덕근 목사(LA복음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라고 인정하셨다. 그러한 모세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 할 수 있다”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 얼굴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보다 존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교회는 우리끼리 지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또 “목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저 위의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전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본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쓴다. 산이 높을수록 그 위에 눈이 쌓이고 눈이 녹아 아래 계곡으로 많은 물이

흐를 수 있다. 이와 같이 목회자는 아무리 바빠도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준우 목사는 축사에서 “목회자는 설교, 심방, 상담, 행정 등을 잘 준비해야 한다”며 “아무리 목회자가 전문적인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 능력은 확신에서 온다. 이를 잘 준비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 위임예배는 인도 위임국장 박기태 목사(산타바바라한인장로교회), 기도 김영일 목사(밸리중앙장로교회), 설교 김상덕 목사, 권면 이준우 목사(밸리한인커뮤니티교회), 축사 양수철 목사(에버그린선교교회), 정철 목사(새생명장로교회), 답사 곽덕근 목사, 인사 및 광고 오영관 장로, 축도 박기태 목사 순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곽덕근 목사는 종신대 신학대학원(M.Div.), 버지니아 소재 리버티 침례신학교(Th.M.), 풀러신학교(D.Min.) 등에서 수학했으며 갈보리교회 부목사, 멤피스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주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문의: 818-894-9266, 370-0146

토마스 맹 기자



강진웅 목사

목회를 해 오고 있다. 출석 교인 수는 약 2백여명.

현재 갈보리민음교회는 미국 교단인 크리스천교회 제자

회(Disciples of Christ) 소속 임마누엘처치(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05) 건물을 빌려 쓰고 있다. 갈보리민음교회는 이날 취임예배와 더불어 이선규, 강신문 장로 임직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213-365-8880

정하나 기자

# 무료 건강박람회 대규모로

### 27일 오전 9시부터 세인트빈센트병원서



이번 무료 건강박람회는 남가주교협과 LA총영사관, 세인트빈센트병원이 공동주최한다.

남가주교협과 LA총영사관, 세인트빈센트병원이 공동주최로 한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박람회를 마련한다.

5일 오전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익 목사)과 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 세인트빈센트병원(원장 케이지 픽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영사관 주차장 및 민원실에서 무료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건강 박람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네 차례 실시됐다. 이번 박람회는 한방대학도 참가할 예정으로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이 행사에선 1000명에게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검진 항목은 혈당검사, 갑상선, 전립선, 간, 신장 등 초음파 검사, 치과 검진, 당뇨병 검진, B형 간염검진, 폐 용량검진, HIV/성감염 질환 검진, 혈압 검진, 체지방 검진 등이며, 현장 의사 상담, 암, 영양, 당뇨, 심장병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 50 명에게 유방암 예방을 위한 매모그램 촬영 서비스도 제공하며, 사우스베일로한방병원도 침술 및 한방치료를 제공한다.

모든 진료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한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문의: 323-735-3000

토마스 맹 기자

# 회계사에서 목사로, 주사랑교회 진명은 목사



진명은 목사

지난 수요일 오전, 한인타운 8가와 별링턴이 만나는 곳에 한 공인회계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계사들이 일하는 책상과 의자가 보인다. 조금 더 들어가니 목양실도 나오고 더 안에는 50 여명 이상 수용 가능한 예배실이 있다. 오전 이른 시간인데 타운 내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속속 모여 들어 예배를 드린다. 진명은 공인회계사가 나와에 관해 설교를 전했다. 회계사가 설교를 한다?

사실 진 회계사는 최근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나 자비랑으로 목회하기 위해 여전히 회계사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목회의 소명을 받았던 그는 끝내 목회직을 고사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하다 결국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신학교로 진학하게 됐고 얼마 전 안수를 받았다. 주사랑교회를 개척하며 아예 회계사 사무실을 독립된 장소로 옮기고 그 사무실 안쪽에

예배 장소를 마련했다. 이날 모인 10여명의 사람들 중에는 주사랑교회 성도가 아닌 이들도 많다. 과거 수요일 모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개척 3개월이 됐는데 현재 교회 성도는 약 30여명이 된다.

이 교회의 표어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복음문화를 회복하는 교회, 전문성을 성취하는 교회다. 이 중 마지막 표어는 회계사이자 목사인 그의 삶과 잘 맞는다. 그는 한동안 자비랑 목회를 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회계사로 살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남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다지만 이제는 목사로 살면서 목회를 위해 회계사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제 고객을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고객이 성도요, 성도가 고객이 되었습니다.”

주소: 1411 W. 8th Street #B

Los Angeles, CA 90017

문의: 213-353-0021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 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이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다들 모르겠어!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스마트 월드 로데오 갤러리아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 323.454.7872**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후지타와 함께라면 더욱 행복해 집니다**

사랑받는 명품!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세계 최고 전신안마기 **KN7005R**

특대일 반값 \$3,900 +Tax 5년 워런티 24개월 / 12개월 무이자 플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콘! 자동차 핸들 커버

TOURMALINE + ALPHA 세계최초 특허품

- 장거리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분
-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 분
-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 분
-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 분

강력한 음이온+원적외선 발생

# 동성에 교육 저지, 이젠 기독교 대안학교만 남았다

## 주님세운교회, 학교 건립 위한 준비 한걸음씩



박성규 목사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동성에 의 무교육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남가주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Stop SB48, Class Act, PRE 등의 운동을 벌였다. 비록 이 운동들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동성에 문제에 대한 경종을 한인 사회에 울렸다. 또 이 운동은 미국의 회복을 위한 한인교회의 열정과 힘을 보여 주기도 부족함이 없었다.

동성에 교육 반대 운동의 선봉에 선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담임목사는 “그동안의 서명 운동이 수백적인 운동이었다면 이제 공격적인 운동을 할 때”라고 말한다. 이 교회는 기독교 대안 사립학교 건립이라는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다.

교육대학 출신이기도 한 박 목사는 인터뷰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사실 이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원칙과도 같다. 거미줄을 아무리 제거해도 거미를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 동성에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안으로 교회 내 사립학교를 세움으로써 이 시대 빛의 자녀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STOP SB48 주민투표 청원운동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사립학교 건립에 대한 절박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도리어 학교를 세우는 길 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다. 10년 전부터 동성에 지지자들이 교육계에 들어와 장악해 왔는데, 그들이 오랜 기간 준비해서 이긴 전쟁을 우리가 1-2년 준비해서 졌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서 한인교회와 앞장서 교회 내 기독교사립학교 건립을 성공시키고, 이 불길을 미국교회에까지 확산시켜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를 사명으로 알고 확산시켜 나가면, 반드시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님세운교회에서는 현재 기독교

대안 사립학교 건립을 놓고 어떠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가.

우선 교육에 있어 교장을 비롯한 디렉터, 교사 등 양질의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재정과 커리큘럼, 건물은 그 다음이다. 신앙적이면서도 실력있는 교사 수급 문제를 놓고 현재 기도 중에 있다.

공립학교에선 경쟁된 크리스천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왕따 당하고 여러 면에 있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가운데 월급을 다소 적게 받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마음껏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면 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실력있는 교사들을 찾아 섭외해 간다면 사립학교 건립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학교 건립을 위한 초기 투자 단계에서 10-20만불에서 50-100만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면 교회의 물질적 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때까지만 교회가 후원하는 것이다. 교회는 학교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되 행정이나 재정은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높은 명문대 진학률로 화제가 되고 있는 세인트 조·중·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제이슨 송 교장과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있다.

JAMA의 대표 김충근 박사는 교인 수가 2-300명이 되면 프리스쿨이나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고, 500명이 되면 중학교를 세울 수 있고, 1,000명이 되면 대학교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독교 사립학교를 통해 우수한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이 검증이 되면, 한인뿐 아니라 미국인들도 보파리 싸들

고 찾아오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많은 수의 학생을 모집하기보다는 40명 정도만 모집해 소수 정예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앞으로 대내외적인 홍보를 거쳐 교사를 수급하기까지 적어도 1-2년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립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빠르면 2014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 ‘기독교 사립학교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대영 장로)’를 조직했고, 여기에 6-7명의 현지 교사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 이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교회 내 사립학교 건립에 필요한 시설, 커리큘럼 마련 등 실질적인 로드맵에 따라 사전 조사 및 준비 작업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학교를 세우려면 운동장이 없어도 가능한지 알아봤는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다. 또한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필요한데, 교회학교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에 사용할 수 있는 교회 내 공간을 알아보고 있고, 어느 건물에 속한 어느 교실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밖에 책상과 의자 등 수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재물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오히려 인가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미국은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겪고 있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 미국이 선교 제1국가로서의 위엄을 되찾고 영적인 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한인들을 이곳에 부르셨다. 한인교회가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고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이에 더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 기독교적인 소명감을 갖고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 일을 통해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이 미국 땅을 휩쓰는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정하나 기자

# 한인-흑인의 화해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정신

## 교협 주최, 4.29 LA폭동 20주년 기념 종교포럼



김영진 목사가 종교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익 목사) 주최로 4.29 LA폭동 20주년 기념 종교포럼이 5일 오후 1시 30분에 LA에 위치한 JJ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교협이 올해 4.29를 기념해 준비한 3개의 행사 중 마지막 행사로, 앞서 남가주영적대각성집회, 다민족기념예배가 열린 바 있다.

UMC의 후원으로 열린 포럼은 연합감리교회 20차 전국 평화 총회 기간에 맞춰 진행됐으며, UMC 목회자들도 일부 참석했다. 이날 기독교계 발표자로 나선 김영진 목사(UMC, 동광교회)는 “1992년 폭동으로 인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정신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민족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시 보게 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배운 것은 한국 상인들이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을 고용해야 하는 것, 그들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타민족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불교계에서 발표자로 나선 종매 스님(로올라메리마운티 대학 종교학과 교수)은 “미래에 한-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코리안 커뮤니티가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역사를 나눴으면 하고, 동시에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도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길 제안하고 싶다. 나눔이 화해의 요인 중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미주장신 제 31회 동문회장에 김용호 목사

미주장신회신학대 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제31회 동문회장에 김용호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가, 부회장에 양옥석 전도사(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가 선출됐다.

이번 회기 임원단의 특징은 젊은 세대라는 점에 있다. 지난 8일 정기총회에서 최다 득표로 회장에 당선된 김용호 목사는 세계성경장로교회 부목사로, 올해 나이 마흔 넷이다. 임기는 1년이다.

김 목사는 “새롭게 취임하신 이상명 총장과 함께 도약하는 미주장신대가 되길 원한다”면서 “나이와 기수를 떠나 하나로 화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모든 동문들의 중지를 모아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미주장신대 6

회 졸업생인 황예행 멕시코 선교사가 참석해 선교보고를 했고, 동문회 차원에서 선교 후원을하기로 약정했다. 이어 C국 선교사로 파송될 예정인 김수영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일정액의 선교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한 미주장신대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로, 그동안 약 595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작년 2011년 2월에 성서고등교육협회(ABHE)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았고 현재 북미신학교협의회(ATC)로부터 준회원 자격을 승인받았다.

지난 18일에는 제 6대 총장에 이상명 박사가 새롭게 취임하며 새로운 발전과 힘찬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정하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커퍼미트와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운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방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맨드레이크 Wilshire

# [이 사람] 13년간 계속된 “청년+연합=부흥”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도, 점심 때 직장 내 동료들을 만나 밥 먹을 때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에게 ‘청년’이 제 1순위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온 뒤 UC산타바바라 화공과에 재학할 당시 영어 공부를 위해 파란눈의 외국인인 아니면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만큼 독하게 살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 독한 ‘기(氣)’를 살려 자신같은 한인 청년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나가나 청년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다.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13년째 청년연합사역을 해 오고 있는 HYM의 더글라스 김 대표다.

HYM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8)’ 말씀 중 ‘Here am I; Send Me’의 첫 알파벳 H와 Young Christian의 Y, Movement의 M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지난달 22일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바울 목사)에서 제27회 찬양집회를 마치고, 내년 봄에 열릴 차기 집회를 놓고 벌써부터 기도의 진을 치고 있는 김 대표. 그는 청년연합 사역의 당위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연합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성경에 적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파 운운하며 담을 짓고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 청년들을 통해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이 땅에 새로운 연합의 역사를 써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사비를 털어 해마다 이 사역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안다. 왜 청년사역에 목숨을 거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청년사역에 대한 마음을 처음 주신 건 93년, 열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에 다닐 때다. 대예배 시간에 성경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러내겠다고 결심했다. 교회 내 봉사라면 주일하고 교사부도 시작해 차광 정리, 교회 안내, 주보 접기,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안해 본 일이 없었다. 일주일에 다섯번 교회에 나오니, 어떤 할머니는 나를 전도사로 오해하기도 했다. 지금이야 베델한인교회 한인권 청년부 인원이 5백 여명이지만, 그때 기껏해야 15명이 전부였다. 1998년 겨울 청년부 회장에 당선돼 성경공부도 인도했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가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이 귀에 쏘였다. “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지 말고, 다른 교회와도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치?”

이 말을 들은 난, “바로 이거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당시 청년부 임원 8명에게 연합집회를 하자고 했더니, “더글라스는 미쳤다고 하더라. 우리 꺼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거 하나냐는 거였다. 워낙에 어느 한 가지에 쏘이면, 그것밖에 못 보는 성격이다. 하나님이 이런 내 성격을 쓰시는 거 같다.

1999년 6월에 HYM 사역에 대한 콜링을 받고 9월 11일에 4교회가 모여 첫 연합집회를 드렸다. 이후 해마다 봄, 가을 두 번씩 집회를 개최해 왔고, 지금 딱 13년 반이 지나 14년째를 향해 가고 있다.

**-그간 어려운 일도 많았을텐데.**

처음부터 힘들었다. 교회에서 이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거의 없었고, ‘내가 알아서 해라’는 식이



더글라스 김 대표

배드필 수 있다면, 또 그 청년들이 변화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

으로 이 일에 매달리는데 일에 지장은 없다.

집회가 시작되기 한두 달 전에는 평소 하고 있던 일을 못 한다. 그런데 집회 드리기 전에 집들이 막 팔린다. 매 집회 때마다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 옆에서 지켜보는 스태프들이 은혜 받는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부어주신다. 그래서 남가주에 있는 한인권 청년부 중에 HYM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1년에 한두 번씩 드리는 HYM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걸 느낀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목사님들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도전 받고 가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역의 목적은 청년들을 깨워 연합하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세우고 싶은 거다. 동시에 믿지 않는 이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세상보다 더 열심히 살고, 삶 속에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들을 양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

## 김준만과 함께 하는 회복과 치유 찬양집회

20여년간 유럽 최정상급 오페라 가수로 활동해 온 테너 김준만이 오는 19일 ‘축복의 소나기(Shower of Blessing)’ 찬양집회를 연다. 오후 7시 45분부터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열리는 이 집회에 대해 교회 측에서 열리는 이 집회에 대해 교회 측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과 열정, 수준높은 은혜의 찬양을 통해 각박한 이민생활에 지친 성도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5대째 크리스천으로 태어난 테너 김준만은 유럽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테너가 평생 올라야 할 가장 높은 산’으로 불리는 주세페 베르디의 오텔로 역을 주로 맡았으며, 지금까지 독창회 40여회를 비롯해 1,261회의 공연을 즐기 차게 해 왔다.

‘오페라계의 이단아’라는 별칭을 지닌 그는, 관객과의 호흡을 중시하다 보니 다소 파격적인 방식을 취할 때도 있다. 노래만 부르고 들어가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장르의 경계를 넘어 팝도 하고 재즈도 한다.

한편, 나침반교회는 오는 11월 2일 오후 7시 45분 참존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을 초청해 ‘간증의 밤’ 집회를 연다.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문의: 562-691-0691

정하나 기자

## 사랑의띠선교교회 선교집회 열린다



김천환 선교 목사

오는 10월 18일(목)과 25일(목) 오후 7시 30분에 사랑의띠선교교회(한국 엘림 장애인 선교회 LA지부)에서 LA선교

집회가 열린다. 18일에는 엘림선교회 조직위원장 정남준 목사(인천 함흥제일교회 담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증경총회장)가 말씀을 전하고 25일에는 엘림선교회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주소 : 1300 W. Olympic Blvd. #200 Los Angeles, CA 90015  
문의: 213-736-6625

한주연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쳐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기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푼!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Wirkstoff를 함유하므로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통신생 대모집 online

**2012년 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본교의 특징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특정: 정규 학위 인준 기관**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타 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 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영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Indian University
  - Lee University
  - Liberty University
  - Oral Roberts University
  - Regent University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신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통신생 전문 최상의 장학금 지급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 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TH,M)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편입생 우대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 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신학 Ph.D	48		
	상담학 Ph. D.	48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협력학교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213) 503-5330      수시접수



## 2012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레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친후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10월 15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레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eusa.com / icce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 사랑의띠선교회 LA선교집회

사랑의띠 선교회 선교집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정남준 목사**  
• 엘림선교회 조직위원장  
• 인천향촌제일교회 담임목사  
•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총회 증경총회장



**고창수 목사**  
• 엘림선교회 사무총장  
• 엘림교회 담임



**김천환 선교목사**  
• 엘림선교회 LA지부장

**일시** 10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강사** 정남준 목사

**일시** 10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강사** 고창수 목사

**장소** 사랑의 띠 선교회(한국엘림 장애인 선교회 LA지부)  
1300 W. Olympic Blvd.#200 LA CA 90015

**문의** 김천환 목사  
(213) 736-6625

## 담임목사 청빙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는 교회설립 2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선교하는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1.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M, Div) 이민목회 5년이상 경험이 있는자.
  2.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한자.
  3.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자(우선)
-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신앙고백, 목회와 선교에 대한 소신서
  3. 학력증명서사본
  4. 목사 안수증서 사본
  5. 추천서 2통(추천인이 직접보냄)
  6. 설교 2편 (CD 나 음성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 보낼곳**  
이메일: sangwoo@sbcglobal.net  
담당자: 당회서기 이상욱 장로  
서류접수 마감일: 2012년 10월 30일
- 참고사항**
  1. 모든 서류와 문외는 이메일로 만 받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보내 주십시오.
  2.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후 청빙후보가 되신 목사님께서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교회전반에 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후에 영상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교회 웹사이트: www.arkmissionchurch.org

**새크라멘토 방주선교회 임시 당회장 임동하 목사**  
Ark Mission Church, P.C.A

### 동정 및 단신

**방익수 목사**



최근 6번째 음반 '불가능 가능케 돼(Nothing is impossible)'를 출시한 얼바인 사랑의방주교회 담임 방익수 목사가 집회 인도자 한국을 방문했다. 방 목사는 지난 3일 호남 '굿패밀리(Good Family)' 5차 복음의 능력 세미나, 5-6일 창원극동방송 녹화, 7일 포항소망교회 집회, 8-9일 속초극

동방송 녹화, 10일 CTS 기독교TV '내 영혼의 찬양' 방송을 진행했고,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10여 차례 이상 집회를 인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민 목사**



나성한인교회 김성민 목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러시아선교지를 방문했다.

**자칭 상담가 위장한 남성에 여성들 피해 발생해 주의 요청**

자칭 상담 전문가로 위장한 남성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불미스러운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청된다.

50대 중반으로 알려진 배 모 씨는 자신을 목사 혹은 선교사로 소개하며 중년 여성들을 속여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한편, 임마누엘복음선교회 구기조 목사는 혹시 배 씨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다면 연락을 요청해 왔다. 213-252-9036(구기조 목사)

## 사우스베이목사회 10월 월례회 열려

다민족연합기도회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Crenshaw Christian Center에서



사우스베이목사회 10월 월례회 기념촬영.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관중 목사)가 10월 월례회를 10일 오전 8시에 토랜스에 위치한 나눔장로교회에서 열었다. 이날 JAMA 부대표 강순영 목사가 참석해 2012년 다민족연합기도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목사는 "다티노, 흑인, 백인이 참여하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엔 남가주 모든 한인 기독교 단체에서 참가할 예정"이라며 "이 기도회를 통해 미국의 영적대각성과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목회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해 11.11 로즈볼 연합기도회 열기를 재연할 것으로 보이는 2012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Crenshaw Christian Center에서 열린다. 대회 주제는 'A Line in the Sand-모래 위의 선'이며, 대회주최는 Rose Bowl Gathering, 한인주최는 남가주교회, 남가주목사회, OC교협이, 한인주관은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가 한다.

한편, 목사회는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에 토랜스조은교회에서 제 2회 사우스베이연합찬양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 목회자들의 배움 열기...목회 현장에서도!

제 6차 영상설교세미나 열려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린 영상설교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해 배움의 열기가 뜨거웠다.

제 6차 영상설교세미나가 10월 1일 오전부터 4일까지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세미나 강사는 김석금 목사가 나선 가운데, 최신 영상 프로그램들이 소개됐다. 이 기간 40여명의 남가주 목회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느라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참석한 박세헌 목사(남가주교협 총무)는 "입소문을 따라 목회자들이 예전보다 2배 이상 참석했다"면서 "3D 영상을 통해 말씀을 시작적으로 다양하게 소개할 수도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 회장 광부환 목사는 "목회 현장에 첨단 영상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매우 유익한 세미나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3D, 비티, 포토샤인, 타이틀 데코, 스위시 맥스, 안 카메라, 파일변환프로그램 등 기타 목회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교육됐다. 김석금 목사는 홍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림설교와 파워포인트 130여 편을 출판해 한국교회와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또 영상설교를 위해 광운공대와 동 대학원에서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용게임 전공,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목회에 필요한 영상설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강의하고 있다. 현재는 꽃동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영상설교 아카데미에서 2400명의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다. 김석금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앞으로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영상설교 아카데미 LA 지부에서는 한달에 수차례 셀프스터디 모임을 열고 있다. 문의: 213-321-4433, 213-255-172 토마스 맹 기자

## 38개의 성분 구성된 환약으로 암세포 멸절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하였습니다"의 저자 한동규 박사는 현재 스페인에서 스페인암연구센터에서 일하며, 스페인 자연요법 암 에이즈 마약협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또 파나마 공화국 LACAS 대통령 주치의로 있으면서 난치 암환자들을 치료해 대통령으로부터 SIMON BOLIBAR 동상이 새겨진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SIMON BOLIBAR은 남미 평화를 위해 힘써온 정치 지도자로 알려졌다.

한 박사의 암 치료법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기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 임마누엘복음선교회장은)는 3년 전에 전립선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한 박사를 통해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 그는 한 박사의 처방대로 환약과 주사를 통해 4개월 만에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치료법을 다른 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자 미주 지역 책임자를 맡아 활동 중에 있다.

한 박사의 처방전에는 환약하고 주사가 제공된다. 구 목사에 따르면 이 환약은 38개의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암세포만을 멸절시킨다. 이 성분 중 대부분의 성분은 남미 아마존 산골에서 추출된다. 이 치료법을 행하면 몸 안의 암세포만 찾아다녀 죽이면서 암세포 고통을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든다.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항암 치료는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는 단점이 있다. 구기조 목사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로 고통 받으며 암을 키우지 말고, 암세포만 죽이고, 암의 핵까지 빠져나오는 기적같은 치료법이 있으니, 제발 희망을 갖고 믿고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아래는 한 여성의 체험사레다.

"제 이름은 로우르데스 산체스 페레스(Lourdes Sanchez Perez)입니다. 35살의 실업 환자였던 저는 허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반병어리가 되었습니다. 93년도에 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부작용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로부터 한동규 박사의 '암의 자연요법'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허를 진찰한 그는 "평생 동안 만난 환자 중 당신처럼 허 전체에 암이 퍼진 사람은 처음이다"며 "치료를 받을지 여부 결정하는 않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동의했고 곧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입과 목에 직접 약침을 놓고 이틀지 약을 처방했습니다. 저는 약침을 맞고 집으로 돌아오자 통증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고통 없이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개월 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결과 암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기쁨이 너무 크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박사의 병원에서 3년 이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켜 본 바에 의하면, 이 병원 환자의 90% 이상이 수술과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암이 재발해서 찾아온 환자였지만, 한 박사의 치료를 받고 기사화됐습니다. 또 이곳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대체로 암이 전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문의: 213-235-5800



구기조 목사

#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D.Min.) 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래어몬트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래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 기관협의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교 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 가지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교육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래어몬트신학대학교의 실천신학목회학 박사 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촉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 입니다.

### [입학원서 마감일]

- ▶ 2013년 1월 입학: 2012년 11월 10일 경
- ▶ 2013년 6월 입학: 2013년 3월 10일 경

### 참고

입학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강날짜에 대한 최종결정은 각각 2012년 11월말과 2013년 3월말에 내려집니다.

### [입학요건]

- M.Div. 학위 혹은 동등학위 소지자 (동등학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학교 웹사이트 참고) <http://media.cst.edu/uploads/genericfile/korean-d-min-application-instruction.pdf>
- 각 학위성적(GPA) 3.25이상 선호
- M.Div. 학위나 동등학위 취득후 3년 이상의 사역경험
- 본 과정은 한인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교수가 한인교수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기타]

- 수업료: 학점당 미화 680불(3년 동안 총 32학점 수강)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 최고 지도자 과정" 수료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 For More Information

[www.cst.edu](http://www.cst.edu)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ndmin@cst.edu  
Tel: 1-973-713-3009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63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 자신의 목회에 “확실한 변화”를 원한다면

클레어몬트신학교를 수석하는 수 많은 단어가 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역사성과 학문성이다. 1885년 맥클레이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샌퍼난도 시에 세워진 후, 1900년 남가주대학교(USC)의 종교학부로 편입됐다가 다시 1956년 분리돼 현재

국의 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클레어몬트신학교는 목회학박사(D.Min.)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학교이기도 하다. 이 학교는 미국

한 D.Min.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D.Min. 과정 책임자인 이경식 교수는 “현재 3기, 총 35명의 학생이 D.Min. 과정을 밟고 있다. 학위의 특성상 교수들과 집중적인 멘토링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최고의 교수진을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에서는 주로 미국인 교수와 함께 한국인 교수가 가르치도록 팀을 짜 놓았다. 한국인 교수의 역할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수업 자체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디자인해 가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인 석학들도 최대한 많이 초빙했다.

UTS(United Theological Seminary)의 박성호 교수는 클레어몬트신학교에서 석사 학위(M.A.)를 받고 버클리에 소재한 GTU(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Ph.D.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의 유영권 교수는 반대빌트대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았다. 그는 자살 방지 운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상한,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상담학자다. 한신대학교 정태기 명예교수는 클레어몬트신학교에서 D.Min. 학위를 받은 동문이다. 그는 치유목회 사역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는 현장전문가다. 텍사스크리스천대학교 감남순 교수는 드류신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았다. 그는 감신대학교 교수,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WOCATI(World Conference of Associations of Theological Institu-



이경식 교수가 클레어몬트신학교의 한국어 D.Min.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클레어몬트신학교 한국어 D.Min. 과정

###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와 멘토링이 강점

### 치유와 화해, 변화 위한 과정으로 주목받아

클레어몬트 시에 캠퍼스를 마련했다. 무려 120년이 넘는 역사는 서부 지역 최고(最古)다.

또 미 연합감리교회의 13개 산하 신학교 중 서부 유일의 신학교이지만 이들 가운데 가장 초교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명문 신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연구 업적을 쌓은 이들이 교수로 초빙돼 가르치고 있지만 이들 중 다수는 연합감리교단 소속이 아니기에 당연히 에큐메니컬 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학문성이 강할수록 자유주의에 가깝다는 일반 대중의 시각이 이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돼, 클레어몬트신학교를 서부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신학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수십명의 동문들이 한

에서 최초로 D.Min.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Doctor of Religion 학위를 개설한 바 있다. 현재 이 학교의 D.Min. 과정은 북미신학교협회(ATSS,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의 인가뿐 아니라 신학교 가운데 드물게 서부지역대학협회(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인가까지 받았다. 클레어몬트신학교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 개설한 한국어 D.Min. 역시 이 인가를 갖고 있다.

한국어 D.Min. 과정의 주제는 바로 치유, 화해, 변화이다. 한국교회는 물론, 많은 현대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인 인간의 전인적 치유, 갈등 속 화해, 변화의 문제를 다루는 특별

tions)의 회장으로 있으며 세계적인 여성신학자로 꼽힌다.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경식 교수는 4대째 목회자 집안이며 고등학생 때 와이오이로 이민했다.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으로 Ph.D. 학위를 받았다. 예일대학교, 웨슬리신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고 2004년부터 클레어몬트신학교에 교수로 와 있다. 1990년대 초반 LA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영어부 목회를 했고 담임목회도 했다.

이 과정이 쟁쟁한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경식 교수는 “학문적인 것만 다루는 것은 D.Min. 프로그램답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과정은 목회 현장에서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새 신자를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은 일반적인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가도 얼마든지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주제다. 그러나 이를 현대의 신학(Hospitality Theology)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나의 목회, 나의 설교, 나의 교회 행정이 전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목회의 방향과 이해, 목적까지도 변화를 겪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 바로 D.Min.의 초점이다. 한편, 한국의 한 대형교회에서는 부목회자들에게 D.Min. 학위를 장려하는데 클레어몬트신학교에서 공부한 부목회자의 변화를 보고 올해 5-6명의 부목회자가 한번에 입학할 예정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어 D.Min.이 한국 목회자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연장교육 차원에서 한국에서 D.Min.을 할 경우 아무래도 시각이 특

정한 틀 안에 갇히기 쉽다. 그러나 미국 신학교에서 D.Min.을 하면 한국을 벗어나 보다 넓은 세계 속에서 목회의 문제를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미국까지 와서 한국어로 공부하는 나”는 비판에 관해 그는 “저는 오히려 왜 신학공부를 영어로만 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고 답했다. “미국 교육의 수준이 아무래도 타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큰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반드시 영어로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업을 위한 자료들이 한국어보다 영어가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영어가 필수적이긴 하다”고 말했다. 물론, 클레어몬트신학교의 한국어 D.Min.도 토플 성적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영어 원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능력은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총 5번의 인텐시브 코스로 구성된다. 미국에서 3번(6월), 한국에서 2번(1월) 강의를 개설돼 코스워크가 진행된다. 논문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 총 10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현재 학생은 35명이며 장로교, 감리교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여성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학생이 3분의 2이며 미국에서 목회하는 학생도 3분의 1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코스워크를 해야 하지만 2년마다 강의 내용이 변할까 걱정될 때에 한 곳에서 끝내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교를 방문해 수업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문의: 이호주 목사 973-713-3009, koreandmin@cst.edu

김준형 기자

##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 월드타운 치유센터/기도원

이제 멀리가실 필요없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지에 있습니다. 병고침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명자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월드타운 치유센터로 기도하러 오세요.



원장 이 엘리사 목사



개인 기도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 월드타운 치유센터 간증자들 .....

성령의 강력한 병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목사  
323.496.2550  
자궁암 말기, 저혈압  
완전치유



제니 번  
323.383.1917  
마약, 도박중독, 우울증말기  
완전치유  
현재 주빙봉사



김 경수  
213.248.7379  
당뇨, 담석말기  
완전치유



정영호 집사  
213.364.4477  
천식, 가래기침, 대상포진  
완전치유



여호수아 번  
818.288.3992  
불면증, 시력이상W 비준,  
무릎 관절염, 아토피  
완전치유



이 승호(다윗)  
213.570.0818  
우울증, 대인기피증  
완전치유  
현재 찬양사역 봉사



정 민례  
213.382.3258  
우울증, 도박  
완전치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365일 예배안내 오전 5시 30분 / 낮 11시 / 저녁 7시

각종시설 및 개인 기도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벌몬트+피코)

24시간 전화 213-382-3258/ 213-725-3007

주소 1331 S.Vermont Ave, L.A, CA 90006

## KCCD, Bank of America로부터 기금 전달 받아



BOA가 한인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KCCD에 1만불의 기금을 전달했다.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회장 임혜빈)가 Bank of America로부터 1만불의 기금을 전달받았다. 4일 오후에 한인타운 내 놀만디가와 마리포사 사이에 있는 Bank of America 웰셔지점에서 임혜빈 회장은 Bank of America의 Consumer Market Manager인 Fernando Guit-

errez로부터 기금을 전달받았다. 이 기금은 Bank of America가 LA 내 한인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CCD는 이 기금을 이 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주택 차압 방지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다.

토마스 맹 기자



#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은 WCC에 대해 바로 알고 따라가지 않는 것

▶1면으로부터 계속 WCC가 '초대형 교회(a Super-Church)'를 추구하는가에 대해 이 교수는 1951년 "하나의 획일주의적 초대형교회가 아니고 결코 그것이 되어서 안 된다"는 선언문을 제시했지만, "WCC는 '교회들'의 협의체로 연합체로서 신약성경이 증언하고 고대 신조가 고백했던 '하나의 교회(Una Sancta)'를 추구하고, 이런 뜻에서 애초부터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했다"고도 해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이형기 교수:**  
**에큐메니칼 운동, 자력구원 주장 안 해**

WCC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사회윤리란 결코 인간의 자력구원을 주장한 펠라기우스 전통을 갖고 있지 않다"며 "2005년 '교회의 본질과 사명' 문서에서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음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로마가톨릭과 루터교 두 공동체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은 교회 일치화를 위해 중차대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침의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하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언자 전통에서 있으면서도 타종교인들,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교회와 국가 모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자유주의 신학 논란에 대해선 "말

은 사람들이 WCC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과격한 사회참여를 실천한다고 비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WCC는 결코 19세기적 자유주의 개신교나 20세기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 전통에 따른 신학을 추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963년 '신앙과 직제' 문서는 성경이 '전승(Tradition)'에서 기원했고, '전통들'을 통해 전수된다고 본다"며 "복음전승(the Gospel Tradition)과 삼위일체론이 WCC 회원 교파들의 다양한 신학전통들을 한데 묶는 통일성으로 가장 근본적인 사도적 신앙전승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다원주의 논란에서도 "WCC는 종교의 다원성(plurality)은 인정하지만 종교다원주의(pluralism)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1979년 '기독교와 타종교간 대화에 관한 지침'은 혼합주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고,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확고하게 붙잡고 특히 도덕과 사회윤리 차원에서 타종교와 대화하고 연대하며, 과학과 기술 등 제반 분야의 학문들과도 대화하고 연대하는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1991년 캔버라 대화에서 이른바 초혼제를 지냈던 정현경 박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했다. 이 교수는 "정현경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한(俄)의 신학 입장에서, 혹은 경험의 세계나 아래로부터의 성령론을 주장하다가 정통 성령론으로부터 너무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정현경의 성

령론은 삼위일체론의 틀에서 벗어나 있고 기독교에 정위돼 있지 않으며, 교회론 및 구원론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종말론과도 무관하여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덕성 교수:**  
**복음 전파 아닌 사회구원에만 매진**

'신학 패러다임의 충돌-기독교와 WCC'를 발표한 최덕성 교수는 "WCC를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며 이형기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교수는 "WCC의 에큐메니칼 신학, 특히 종교간 대화 신학과 비성경적 성경관을 추종하던 유럽, 북미, 대양주 주류교회들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조종(弔鍾)을 울리고 있다"며 "그 퇴락의 원인은 상대주의 진리관, 만인보편 구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신앙무차별주의에 기초한 신학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확신의 부재, 십자가 도리 중심의 복음의 실종, 하나님 말씀의 결핍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구원론에 대해서는 WCC 최근 문서를 제시하면서 "WCC는 구원의 길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문화나 종교, 인종과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이 단체의 선교와 복음전도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없고, '전 복음(whole gospel)과 통전적 신학(holistic theology)을 읊조리지만 입술에 발린 구호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구

원 유일 신앙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WCC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도리와 진리의 복음 전도를 위해 동전 한 닢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회구원 지상주의 활동에만 매진한다"며 "오직 예수 구원이라는 복음적 신앙은 WCC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WCC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지 않고, 역사서와 문학서와 같은 인간의 책으로 여긴다"며 "성경이 무오(無誤)하거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언(神言)이라 보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관, 바르트주의 성경관, 급진주의 성경관을 묶어 자신의 것으로 표방하고 있다"고 했다. "인도주의 활동, 인간화, 혁명투쟁, 해방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기독교인들 순교자로 추서하고, 최근에는 질병 치료, 가난 해방, 학교 건설, 공해와 상생 등을 선교라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도 "종교다원주의는 이 교수님 말씀처럼 WCC 안에 소수 종교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몇 가지 문서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신학"이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타종교간 대화에서 새롭게 참된 진리를 찾아낼 수 있으며, 자기 종교의 진리를 순해 보고 양보할 자세로 대화하라고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독교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을 아우르고 하나로 묶으려는 '종교혼합주의', 즉 폭넓은 에큐메

니즘(wider ecumenism)과 거대 에큐메니즘(macro-ecumenism)도 추구한다고 했다.

**들어가서 변화시키자고?**  
**WCC가 바뀔 적 있나**

최덕성 교수는 "역사적 기독교와 WCC 기독교는 서로 다른 신학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 부산 총회를 기회로 이 단체가 복음적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는 신학자들의 기대는 공상(空想)에 지나지 않는다"며 "WCC로 들어가 복음적·성경적으로 단체를 바꾸자고 제안하지만, WCC에 가담한 복음주의자들도 신학 노선을 조금이라도 복음적으로 바꾼 적이 없고, 반기독교 운동의 들러리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은 WCC에 대해 바로 알고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WCC 총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WCC를 향해 부산총회 계획을 철저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고, 특히 WCC 비가맹교단이 자신과 무관한 기독교 연합기구의 행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의 행사에 대해 '내 밥상에 죽음의 재를 보내지 말라'고 외치는 것, 한국교회의 죽음과 직결돼 있는 독성에 대한 항의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했다.

이대용 기자

## 북한인권운동, 이제 내일을 모색할 때

### 사회변화 따른 기독교 역할 - 제3회 미래와행복포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규 목사, 지덕 목사, 이용규 목사(앞줄 맨 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제3회 미래와행복포럼(대표고문 조용기 목사, 대회장 이용규 목사)이 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연구위원(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 '주사파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북한인권'을, 이용희 교수(가천대)가 '종북좌파·주사파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북한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운동이 본격화돼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탈북자·납북자 문제 등 접근 가능한 영역에서 성과를 낳았지만, 북한정권이 스스로 개선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새로운 접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며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한 북한인권운동 주체들의 효과적인 해법 제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체상태와 대안부재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민주화 노력 없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인권개신 없는 북한민주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 내부에서, 즉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함양 및 권리 자각을 일깨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세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인권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알려리 찾기운동'이나 '대북정보 자유화 촉진운동'이 요구된다. 그는 북한인권운동의 과제를 '규모화, 전문화, 대중화'로 제시했다. 규모화는 연대와 협력 강화이고, 전문화는 내부역량의 체계적 구축, 대중화는 국민운동으로의 확산을 말한다.

먼저 규모화에 대해서는 "현재 소규모 단체들이 난립하고 단체간 연대성이 높지 않은 문제를 정책 협의와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과 연대를 강

화해 규모의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북한인권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화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상근자들을 위한 전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체계적 커리큘럼을 짜야 한다고 했다. 대학 연구소나 관련기관과 협조해 '북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새로운 운동가들을 발굴·육성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화는 '통영의 딸' 캠페인에서 보듯 "누구나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인권이슈와 담론들을 지속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진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용희 교수는 북한의 기독교 공격에 맞서 '순교를 각오한 인터넷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대남 인터넷 전략에서 '한국교회 죽이기'를 중점 실시했고, 그 결과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졌다"며 "한국교회는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알려 위험성을 잘 몰라 무방비상태로 젊은이들을 빼앗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통일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서적들을 교회에 비치하고, 북한 전문가기관이나 북한 선교단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나 전문서적, 탈북자 증언이 담긴 서적들을 널리 배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인터넷 여론을 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을 계속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이상 어린이·청소년, 청년 전도는 불가능하고 국가와 교회가 함께 패망할 수 있다"며 "세계 선교를 위해 순교를 감수하듯, 한국교회는 인터넷 선교에 순교를 각오한 헌신과 희생의 값을 기꺼이 치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대용 기자


##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 RETREAT CENTER




##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타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빛교회**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만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71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선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2: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 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25 (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LA 동부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재지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점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전길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청소년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들이하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 믿음으로 꿈꾸며 꿈을 이루는 교회

## 메시아장로교회, 제6회 메시아잔치 열어



메시아장로교회가 10월 7일 제6회 메시아잔치 초청주일을 가졌다.

워싱턴DC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가 설립 23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7일을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새신자들을 초청하는 '제6회 메시아잔치 초청주일'로 지켰다. 메시아잔치는 메시아장로교회가 교회 설립기념주일에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될 영혼구원의 선물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진행해 왔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물론 교회가 일년 내내 전도에 힘쓰고 있지만 특별히 메시아잔치가 열리기 전 3개월 동안은 전 교인들이 영혼구원이라는 한 목표 아래 단합하고 힘을 모은다.

올해는 7월 말 전도폭발 무장사역을 실시하면서 메시아잔치를 준비했다. 8월에는 매주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메시아잔치를 위한 심야기도회로 모였다. 그리고 각 구역별로 노방전도에 힘썼으며, 태신자들을 정하고 함께 기도했다. 금년 메시아잔치의 표어인 '꿈은 이루어진다'로 7행시를 공모하기도 했다.

8월 마지막 주에는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고, 8월 31일(금)부터 9월 2일(주일)까지는 유현숙 선교사를 초청해 전도간증집회와 전도훈련세미나를 진행했다. 9월 2일은 '2012년 메시아잔치 선포주일'로 지키고, 전교인이 모두 전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메시아잔치가 되도록 기도했다.

메시아잔치 초청주일에에는 한세영 목사의 설교 외에 메시아 중창단의 특별찬양, 이성순 집사(1부)와 정상희 집사(2부)의 간증, 영상 등의 순서를 추가해 특별하게 드러졌으며, 50여명의 새신자들이 참석했다.

"꿈은 이루어진다"(빌 2:13)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한세영 목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한 목사는 "아무리 부족하고 험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고 축원했다. 조요한 기자

# 이성은 자매 퇴원 확정... 안락사 논란 사실상 종결

## 병원측 퇴원 결정 통보, 가족들 퇴원 날짜 협의 중

병원측의 안락사 강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만호 목사의 자녀 이성은 자매에 대해 노스쇼어 병원측이 퇴원을 결정하고 6일 이틀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현재 이성은 자매 가족들은 퇴원 날짜를 두고 협의 중이다.

병원측의 이같은 결정은 이성은 자매가 계속 안락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안락사를 강행하려는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과는 관계없이 이성은 자매의 의사에 따라 퇴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만호 목사는 지난 주일 오후 "우리 가족들

이 병원측에서 성은 자매 주치의와 사회복지사 등과 만나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측은 이성은 자매의 퇴원 및 타 병원 이동 권한을 가족대표에게 일임한 상황이다.

이만호 목사를 비롯한 가족들은 퇴원 후 치료를 받을 곳을 두고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적합한 퇴원 날짜를 두고도 협의하고 있다.

이번 이성은 자매의 퇴원 확정으로 인신교계를 넘어 최근 미국 메이저 신문에 의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된 안락사 논란은 완전히 종결될 전망이다.

김대원 기자

# 깊어가는 가을, 수준 높은 음악회 풍성

## 연합장로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음악회 <천지창조>



지난 주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풀어낸 수준 높은 음악회가 애들랜타 곳곳에서 열렸다.

지난 6일 오후 7시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총장 김창환, 이하 GCU)에서는 천미선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독주회가 열렸다. GCU 발전 기금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2백여명의 한인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워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빠져들었다.

이날 독주회에서는 바하의 칸타타 147번 중 '예수는 인류의 소망 기쁨되시니', 베토벤의 소나타 23번 '열정', 쇼팽의 야상곡 Op.9 No.2, 즉흥환상곡 Op.66,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이 선보여졌다.

Euguen Pridonoff, Elisabeth Pridonoff, Daniel Shaprio, 구본희, 문익주 교수를 사사한 천미선 피아니스트는 신시내티 음악대학 연주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GCU 음

악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7일 오후 5시에는 애들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 창립 35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꼽히는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3부에 걸쳐 웅장하게 펼쳐졌다.

이날 음악회는 앞서 인사말을 전한 정인수 목사는 "이번 음악회는 창립 35주년의 마지막 행사로 13주 동안 모든 연합교회 성가대원들과 오케스트라단이 합심해 준비했다. 음악회에 한결같이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담아 본다"라고 소개했다.

음악회는 안태환 지휘자의 인도 아래 80여명의 성가대와 30여명의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함미애, 테너 채혁, 바리톤 표경진 씨가 무대를 꾸며 감동적인 선율을 풀어냈다.

앤더슨 김 기자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안전한 인터넷 쇼핑몰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 한인축제 보은 세이노



# HQ 山 蔘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명의 미국, 인디언 심amani 협력 업체

산삼의 가격 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산삼도매 한인 최대유통회사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싱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씻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인증된 천종산삼 도매가격표**

산삼수령	뿌리당 무게	가격/454g
1호: 60-120년근	23-35그램	1,700 <del>\$2,400</del>
2호: 50-80년근	15-22그램	1,400 <del>\$1,700</del>
3호: 30-50년근	9-14그램	1,200 <del>\$1,400</del>
4호: 20-30년근	5-8그램	900 <del>\$1,200</del>
5호: 10-20년근	2-4그램	550 <del>\$900</del>

\*특호와 150년 이상된 스페셜 진귀산삼은 뿌리당 별도 가격이 적용됩니다.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산삼 수령을 이유로 비싸게 팔지 않으며 호수별 무게를 지켜드립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검역소, 면세통관을 도와드립니다.

**\$200 / 소매가 \$1,000**  
130그램 / 평균 20-30년근 30-40 뿌리

**\$600 / 소매가 \$3,000**  
250그램 / 평균 40-50년근 30-40 뿌리

##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림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맥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8. 각종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14. 루메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15. 만성피로나 하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깨끗하며 종기를 식혀줌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 진다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월-금: 10am-7pm, 토:10am-5pm

#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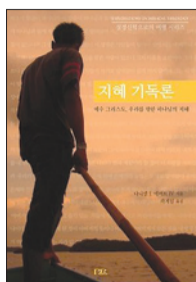
## 통

### 신간추천

#### 지혜 기록론

다니엘 J. 에버트 지음 | 광계일 옮김 | CLC | 3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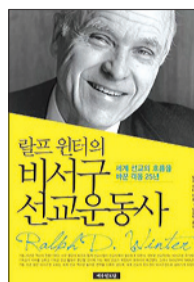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자아 도취 풍조로 충만한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1세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어떻게 충만한 지를 가르쳐 준다. 다니엘 에버트 박사는 구약적 개념의 지혜가 신약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어떻게 놀랍게 승화되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랄프 윈터의 비서구 선교운동사

랄프 윈터 지음 | 임윤택 옮김 | 예수전도단 | 296쪽

현대선교의 거장으로 꼽히는 랄프 윈터 박사는 이 책에서 1960년대 이후에 비서구권에서 일어났던 신앙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쇠퇴와 비서구 국가들의 선진화 시기인 1945년부터 1969년까지 일어난 비서구권의 변화를 명쾌하게 짚어내고, 남겨진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계기를 마련해 준다.



#### 변증학

코넬리우스 반틸 지음 | K.스코트 올리핀트 편집 | 신국원 옮김 | P&R | 6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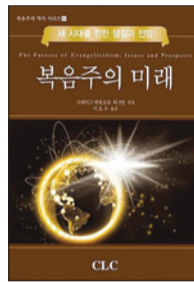
《변증학》 개정4판은 코넬리우스 반틸의 원저작 전문을 복원하고, 반틸에 대해서 독보적인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스코트 올리핀트 교수의 설명과 각주를 더했다. 이 책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일관성 있는 변증학 방법론을 이해하고 현 시대에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복음주의 미래

크레이그 바틀로뮤 외 2인 지음 | 이호우 옮김 | CLC | 456쪽

《복음주의 미래》는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들이 교파적, 신학적 다양성 가운데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복음주의에 대해 성경 해석, 선교, 윤리, 정치 등 핵심 주제별로 돌아보며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책이다. 현재 복음주의가 취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 이슈의 방향은 복음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 성경에 감춰진 흥미진진한 인류 역사의 드라마

윌리엄 H. 브라운리 박사로부터 사해 사본에 대해 배웠고, 케네스 W. 클락 박사에게서 신약성경 원전연구 기술을 전수받은 세계적인 성경학자 닐 R. 라이트풋 교수(아빌린 크리스천대)는 <성경의 탄생>에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특히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까지 도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미션월드 <성경의 탄생>의 시작점은 '고대시대 책 제작과정'이며, 마침표는 '최근의 영어성경 역본'에서 찍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어쩌면 옥당의 <성경의 탄생>보다 포이에마의 <성경 번역의 역사>, 엔크리스토의 <성경의 기원> 등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성경이 우리 손에 전해져 온 과정에는 목숨을 건 사람들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한 그 안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이들의 수고와 믿음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며 "우리는 수천 권의 책이 쓰이고 인쇄되는 시대에 살면서 이같은 성경에 감춰진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간과하기 쉽다"고 문을 연다.

저자의 방향은 성경의 권위와 역사성을 확증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성경이 유서 깊은 책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아니며, 오래 전부터 돌과 점토, 나무 및 밀랍, 금속, 도자기 파편, 파피루스, 가죽 및 양피지 등 기록 수단이 다양했음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수 없었으리라는 가설에 반박하는 데 사용한다.

또 성경은 1500여년에 걸쳐 다양한 곳에 살던 여러 명이 다양한 언어로 기록한 책들의 묶음이지만, 어쩌다

가 기록된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랜 세월을 거쳐 감수된 책도 아니다. 성경 66권의 배열은 논리적이거나 점진적 변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 모습에 이르렀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고대 서기관들'이다. 지금이야 키보드와 모니터로 편하게 쓰고 지우고 저장하고 삭제할 수 있지만, 당시는 펜과 연필, 종이를 꼬도 풀 수 없던 시대였고, 우리 조상들이 쓰던 먹이나 베틀, 화선지조차 없었다. 복사기나 스캐너, 하다 못해 인쇄기나 활자술도 없어 책을 여러 권 펴내려면 팔이 빠져라 받아써야 했다. 서기관들 뿐 아니라 복음서를 썼던 마태와 요한 같은 예수의 제자들도 갈대를 가느다랗게 쪼개 만든 날카로운 펜촉 모양의 펜을 물과 고무를 카본 블랙과 혼합하여 제작한 검은색 탄소 잉

크에 찍어야 했다.

세월이 흘러 중세 때 수도원 필사실에서 일하던 서기관들은 모든 종류의 문헌을 책으로 제작했고, 고대 원전을 모두 필사해 성경 원전 보존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은 간혹 페이지 여백이나 필사본의 끝에 '엄청난 땀과 노고가 곁들여졌다' 같은 메모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런 곳에서 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책에서는 또 고대 사본의 중요성과 시대 사본을 비롯해 여러 연설체(대문자로 기록된) 사본들의 발견과정 등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성경의 유일무이성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권위에서 비롯되고, 성경 안에 담긴 구원의 주제와 견고한 도덕성도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해 준다"



닐 R. 라이트풋 | 미션월드 | 312쪽

며 "원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 본문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궁무진하고 그 질적 수준이 신뢰성이 높으며, 각종 사본과 번역본을 포함한 본문 기록들은 그 수가 너무나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의 '명백한 연구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대웅 기자

## 거룩한 발걸음 "Travel of Life"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단순한 관광적 차원을 넘어 순례하며 예배하며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여행입니다

### "Travel of Life" 2013년 성지순례 계획

- 출애굽 순례
  - 1월 29일 출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290
  - 2월 19일 출발 -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2,590
  - 3월 11일 출발 -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2일 \$2,890
  - 4월 2일 출발 -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490
- 사도바울 전도여행 순례
  - 3월 12일 출발 - 터키 8일 \$1,590
  - 4월 8일 출발 -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2,490

• LAX 공항 출발 기준이며 타주 출발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최소 출발 기준 15명입니다  
• 위의 날짜는 모두 100% 출발 확정된 것입니다

### "Travel of Life" BIBLE FIELD STUDY

-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와 협력하여 진행
- 성경의 중심무대인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학적인 순례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
- 3월 1일(마감)/3월 11일(신청가능)/4월 1일(신청가능)

### 목회자 안식년 PROGRAM

- 종교개혁지 탐방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개혁신앙의 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영적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한 일정
- 회복 여행 (Retreat Tour)  
사역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회복시키는 일정

문의 : TRAVEL OF LIFE - BLISS & GANA 714.681.6356

Los Angeles Office, 893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E-MAIL : traveloflife1@gmail.com

###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사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삼위 하나님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는 말씀이 있었습니

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니엘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의 방문이 선지자 다니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히대겔, 곧 티그리스강에서 기도할 때 벌어진 광경입니다. 21일 동안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강가로 보내어 다니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장소는 하늘의 영광이 땅에 나타나는 은총으로 열매 맺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제 2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직접 나타나서 그의 모습과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에 의인 다니엘도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처럼 깊은 잠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세례 받는 현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이처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현상에 나타났습니다. 티그리스 강가의 체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이어서 천사의 나타남으로 연결됩니다. 그 천사는 페르시아를 관찰하는 천사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큰 전쟁으로 인하여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즉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약교회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세례받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소는 3천 층의 중심에 계시던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천군천사들이 왕래하며, 미래에 벌어지는 땅의 일들이 설명되는 신령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기도는 신령한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대로입니다.

### 급하면 기도하십시오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흔히 말하기를 “급하면 돌아가라”고 합니다. 급할 때에는 생각이 좁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며 말에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는 일치고 잘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급하면 돌아가면서,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며, 일이 진행되어 나갈 여려가지 가능성들을 추측해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식도 서로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런 경우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가 웅덩이에 빠졌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이 알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시편 42:1-2)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부르짖음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부르짖음은 기다림이 되고 기다림은 부르짖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할 때에 기도합니다. 단 순히 시간이 급해서만이 아닙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저는 조용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지혜를 얻어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급하거든 기도하십시오. 답답하거든 기도하십시오.

### 남자들이 결혼하면 살찌는 이유



양성필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남자들은 결혼하면 대부분 살이 찹니다. 일단, 총각일 때는 쉬지 않고 다니고 움직이니까 살이 쪼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일단 자동차로 다닙니다. 그러니 먹는 것에 비해서 운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살이 찹니다. 두번째 이유는, 제 때 밥을 먹어서 살이 찹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총각 때에는 부모님과 지냅니다. 언제고 집에 오면 자정이 넘어도 어머니는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때론 간식까지 챙겨 주십니다. 오직 자녀들의 목으로 넘어가는 음식 소리에 어머니는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오히려 밥을 더 안 먹습니다. 언제고 어머니께서 챙겨주시는 것이니까, 굳이 제 시간에 먹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는 어머니 얼굴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달라집니다. 아내의 식사 시간에 남편이 앉아 있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식사 시간이 아닌 다른 때에 챙겨주는 것을 귀찮아 합니다. 그러니 식사 시간에 꼭 먹어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또 배가 고프습니다. 그럼 또 라면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결혼하면 항상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밥을 못 먹으니 꼬박꼬박 챙겨먹고 살이 찹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 얼굴을 보면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머니’란 이름의 천사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수호천사입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2년 전에 어머니께서 천국에 입성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한국과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한국은 다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한국은 더 이상 나의 고향같지가 않습니다. 고향은 어머니였습니다. 조국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창3:15).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니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한 영원한 에덴을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갈수록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채로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나무의 열매로 접근하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저 멀리서 “여기서 도와줄게”라면서 재판관처럼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고향입니다.

어머니를 뵈기만 해도 배가 부르듯이, 하나님을 뵈면 식욕을 잃어 버립니다. 안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모세가 40일동안 시내산에 있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뵈기만 하면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 초등학교 1학년



서경훈 목사  
애들랜타 함께가는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는 왜 엄마 말을 듣느냐” 물었더니 한 녀석이, “안 그러면 엄마가 angry한다”고 대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진솔한 대답입니다. 엄마에 대한 두려움이 순종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대학 다니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참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angry할까 봐, 그래서 순종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친다고 대답한다면, 우리의 영적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순종 안하면 천국에 안 들어 보낼까 봐, 즉 지옥에 갈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 안하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라면, 이런 영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 상장을 받았으면 아버지로부터 1천원씩 상을 받았습니

다. 그땐 공부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가 1천원짜리 지폐의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실까 봐요. 그렇다면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쯤 돌아봅시다.

###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정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213) 402-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아버지와 아들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지난 화요일에 멕시코 정 선교사님을 만났다. 정 선교사님은 오래 전부터 선교사역을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계신다. 선교사님은 칼텍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지난 10여년 간 멕시코와 남미의 미전도종족을 전도하는 데 헌신하셨다. 정 선교사님은 젊었을 때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 그런 탓인지 선교사역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이런 저런 의논을 해 오곤 하신다.

한 달 전쯤 정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얼마 전 멕시코 선교 1세대로 로사리토에서 선교사역을 하 시던 아버님이 지병 끝에 소천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지난 25년간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자신은 앞으로 인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까닭에 누군가 아버님이 지어놓으신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해왔다.

먼저 건물을 보는 것이 순서이겠다 싶어서 로사리토를 방문했다. 건물은 총 15000스퀘어피트의 터에 예배당과 주거 및 단기선교팀 합숙시설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 삼층 건물인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지은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따뜻한 건물이었다.

선교사님은 건물 이곳 저곳을 소개하다가 창고 비슷한 서너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 들어서면서 이 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말했다. 선교사님의 아버지께서 선교 초기 이 좁은 공간에 5년여를 기거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다. 그 말을 하는 선교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다.

건물을 소개한 후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른 목적을 설명했다. 이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평생을 걸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온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를 도왔던 미주한인교회들의 도움과 헌신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은 남가주한인교회의 건물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남가주한인교회들이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다고 하셨다.

선교에 헌신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에 헌신한 아들. 아버지의 유별난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적잖은 고생을 했을 텐데도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생각하면 할 수록 고맙고 존경스러운 믿음의 뿌리요, 사역의 모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는 참으로 행복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선교의 사역도 아름다우려니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역을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고 애써하든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귀한 아들을 두고 가신 분이기에 때문이다. '과연 내 아들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여기 이 아들처럼 나의 평생의 사역에 대해 이처럼 큰 긍지와 자랑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아버지와 아들은 큰 감동이자 도전이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은 과연 우리, 즉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크고 작은 믿음의 유산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과연 그들에게 감동을 줄 어떤 믿음의 유산이 있을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 세계 성만찬 주일



한기준 목사  
남가주주님의교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에베소서 4:1-6)”

지난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가함으로써 하나됨을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의 유래는 1982년 페루의 수도인 리마(Lima)에 모였던 <세계 교회협의회(WCC)>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만찬 예식서 (세례, 성만찬, 사역(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를 내놓으며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성만찬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리마 문서(Lima Documents)>로 불리는 이 성만찬 예식서는 전 세계의 교회가 교리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성찬을 함께 참여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식서를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16세기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에 견줄만큼 세계 교회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문서로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계 성만찬 주일의 의미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만찬을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공유하면서 연대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 혼자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함께 나눔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나눈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파가 서로 다른 것도 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고, 교리가 서로 다른 것도 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이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One Body)인 것입니다.

이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자매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날입니다. 인종과 피부색, 국경과 사상을 뛰어 넘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나'됨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너'됨도 귀한 것임을 깨닫는 주일입니다. 내가 가진 색깔도 중요하지만, 남이 가진 색깔 역시 귀한 것을 알아 주의 성찬을 나누며 서로의 독특한 색깔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주일입니다.

나의 나됨과 상대방의 너됨이 다름이 되어 서로 갈등과 분열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할 때 '우리'라는 한 몸을 나눈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나눈 한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 정신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가만 있으면 뒤로 가는 겁니다



손기성 목사  
워싱턴DC 은혜장로교회

'미국의 사갈'이라 불리는 화가 해리 리버먼(Harry Lieberman)의 인생은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폴란드 출생으로 훌륭한 랍비를 만들려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29세에 단돈 6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는 맨해튼에서 사탕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77세가 되어 은퇴를 하고 그저 주변의 노인들과 체스를 두며 소일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평소 체스를 함께 즐기던 친구가 자리에 나오지 않아 홀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곳을 찾은 젊은 봉사원의 권유를 듣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보다 미술실에 가서서 그림을 구경하거나 그리는 법을 배워보시면 어떻겠어요?"라고 말합니다.

리버먼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료하던 차라 곧 미술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림 그리는 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무려 77세의 떨리는 손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고 급기야 101살이 될 때까지 그림을 그려 스물 두 번의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는 77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변의 권유를 흘려듣지 아니하고 행동하므로 자신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도전과 본보기가 되는 인생 일화인지 모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오정'이라 해서 45세는 '정년의 때'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국이든 미국이든 정년의 때가 빨라졌고, 또 경제 악화로 모든 삶의 환경에 좌절과 절망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니 과거에 연연하고 안되

는 일, 안되는 환경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생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신의 미래를 가로막는 족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읽다 보면 다 망해버린 것같은 이스라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 선행될 조건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고 용기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버먼이 젊은 봉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흘려 버렸다면 위대한 인생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신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시 당신이 계획한 그 일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가만히 멈추어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 BEAUTY &amp; HEALTH

## BEAUTY &amp; HEALTH

## 섬섬옥수 손 관리 “어렵지 않아요”

손은 얼굴보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얼굴에 비해 각질층이 두 배 이상 두껍고 피지선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 피부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다. 춥고 건조한 가을에는 손의 노화가 더 심해진다.

특히 물에 손 담글 일이 많은 주부의 손은 물에 자주 닿는 만큼 피부가 붉어지거나 틀 우려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손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 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자.

글=코리아포탈 제공 (www.KoreaPortal.com)

## # 청결을 유지하자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손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흐르는 물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씻어주도록 한다. 알코올이 함유된 세정제는 손을 건조하게 하므로 미온수로 자주 씻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 고무장갑 착용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고무장갑 착용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손 노화를 앞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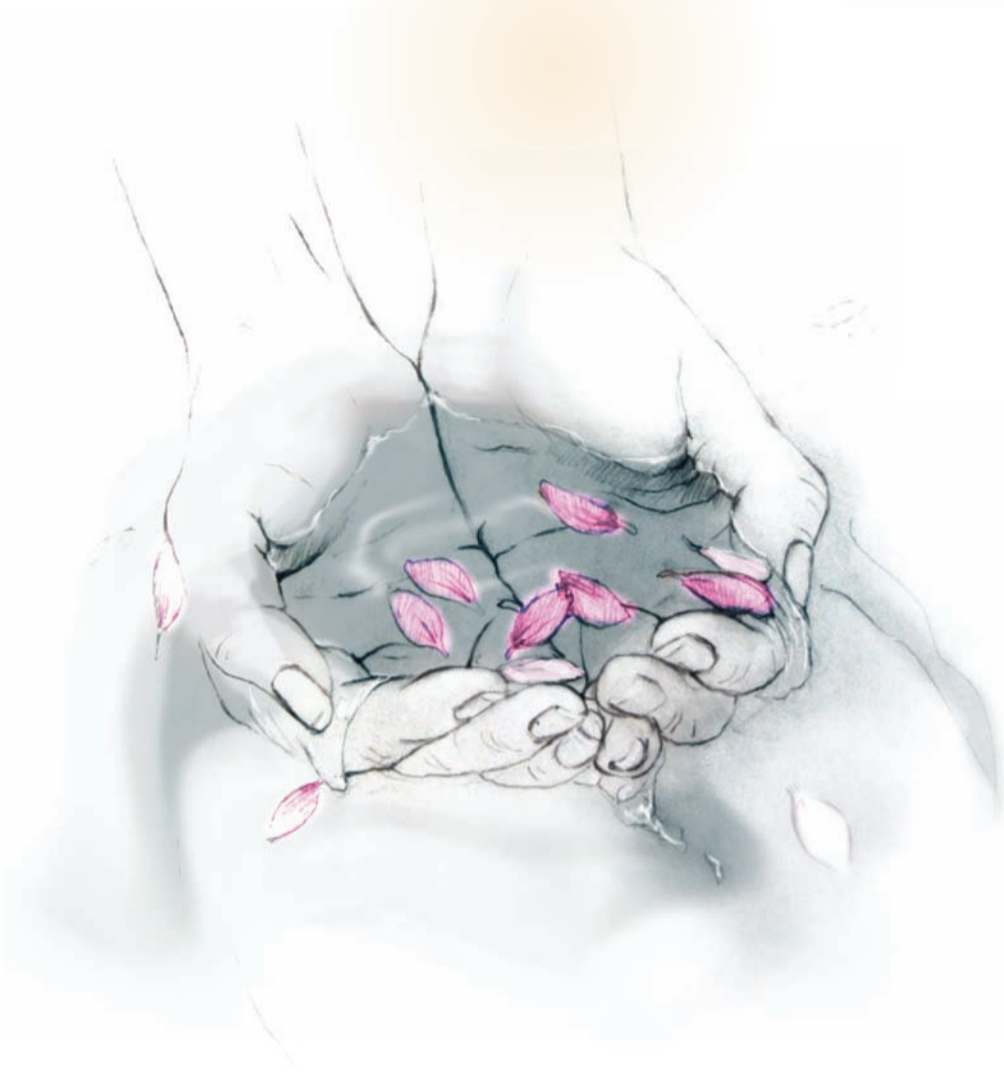
기는 주범이다. 손이 장기간 물과 닿게 될 경우 수분 손실이 발생해 손이 건조해진다. 또한 주방 세제가 손에 직접 닿는 것은 손 미용에 치명적이다.

## # 자외선 차단제

얼굴과 마찬가지로 손 역시 자외선에 노출이 잦은 신체 부위 중 하나다. 이에 기미나 반점 등이 생기기 쉽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에는 얼굴이나 목뿐만 아니라 손에도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 #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손 관리 팩

로션과 흑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설탕이 녹을 때까지 손등과 바닥을 마사지해 준다. 이후 미온수로 닦으면 부드러운 손을 유지할 수 있다. 쌀뜨물과 우유를 미온수에 섞어 손에 끼얹으며 마사지하면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다. 코코아는 주름 개선 효과가 탁월하므로 손에 바른 뒤 랩을 씌워 스팀타월로 돌려주면 좋다.



## 미슐랭의 음식 이야기

## 아이들을 위한 머리 좋아지는 음식 7가지

고등학교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의 가장 큰 자랑은 자녀들의 성적일 것이다. 누구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했다니 하는 이야기들은 엄마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는 최고의 자양강장제임에 틀림없다. 귀한 내 자식을 멋지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터.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 마음대로 자라 주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한다.

글=요리연구가 미셸 조 제공

한창 뛰어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음식을 챙겨줘서 머리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두뇌 개발을 도와주는 이른바 '머리 좋아지는 음식'은 건강과 성적을 동시에 챙겨주기에 청소년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식품이기도 하다.

## 1. 달걀

달걀 노른자는 기억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스프부터 스크램블, 샌드위치까지 매우 다양한 요리법이 있어 아이들이 먹기에 편하다.

## 2. 오트밀

오트밀의 주재료 중 하나인 귀리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E, 비타민 B, 칼륨, 아연 등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뇌의 기능을 도와주는 데 안성맞춤이다.

## 3. 땅콩 버터

고소한 맛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인기만점인 땅콩 버터에는 항산화물질이 있어서 뇌신경세포의 막을 보호해준다.

## 4. 연어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연어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식품협회에서도 뇌기능 향상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5. 현미

각종 뇌활동에는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현미는 뇌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최고의 곡물이다.

## 6. 소고기

철분과 아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과 기억력 향상에 매우 좋다. 혹시 비만이 걱정돼 소고기를 먹이기 꺼림칙하다면 검은콩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7. 우유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우유도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비타민 B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뇌조직 성장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 COVER STORY

## 목사가 작사하고 사모가 작곡한 듀엣곡

# '고백되어진 사랑'

최근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담임 목사에 취임해 화제가 된 양성필 목사(41)가 그의 아내 좌은혜 사모와 함께 작사·작곡한 남녀 듀엣 혼성곡 '고백되어진 사랑'을 발표했다.

신학생 시절부터 찬양인도자로 섬기면서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예배를 추구해온 양목사는 여느 목회자보다도 찬양을 중시하는 목회자다. 뉴욕에 위치한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짐 심발라(Jim Cymbala) 목사가 그의 롤 모델이다. 심발라 목사의 아내 역시 찬양을 작곡하는 음악가라는 점에서 닮아있다.

양 목사 부부는 이번 신곡 발표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하늘에 닿은 십자가'라는 곡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노래는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의 딸, 최수진 씨가 싱어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인 최 씨는 어려서부터 찬양에 은사를 지니고 있어 여러 기획사로 부터 가수 제의를 받을 만큼 천부적인 자질을 지닌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하늘에 닿은 십자가'는 양 목사 부부가 평소 찬양을 좋아했던 장인 故 좌동남 장로를 위해 지은 곡이기도 하다.

"생전 딸이 작곡한 노래를 들어보고 싶었던 부친을 위해 딸 좌 사모가 곡을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양 목사가 가사를 붙였다. 좌 장로가 소천한 뒤 한 달여 만에 곡이 완성돼 세상에 발표됐다.

작곡을 맡은 좌 사모는 고등학교 시절 당시 아마추어 가수 등용문 중의 하나인 포토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을 직접 작곡한 경력자다. 이번에 발표된 신곡 '고백되어진 사랑'에서는 피아노 연주를 맡기도 했다.

양목사는 이번 신곡의 가사 내용에 대해 "요즘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많은 대화와 즉석에서 전 세계적으로 오고 가지만, 정작 가정과 직장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 '고백되어진 사랑'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찬양'이라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프로듀싱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와 '바람의 나라', '제빵왕 김탁구' 등의 OST를 작곡한 이상문 프로듀서가 맡았다. 우 씨는 다년간 KBS에서 활동한 레코딩 전문가이자 워십 디렉터로, 교회 영상 제작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우 씨는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40일 대각성기도회에서 40개 부흥 관련 영상을 제작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또한 이 곡의 베이스 주자인 스티브 빌먼(Steve Billman)은 실력과 워십리더로 그래미상을 수상한 경력도 갖고 있다.

이번에 양 목사가 지은 '고백되어진 사랑'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1. 남자  
주님은 나의 꿈이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다면  
시간에 흐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후렴> 여자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죠  
고백된 내 주님사랑 큰 구름 되어 흘러가  
저 하늘까지 함께 해요

2. 여자  
주님을 만난 그 후에  
당신을 향한 그- 오랜 기다림 안다면  
시간에 흐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후렴> 남자  
주님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 그- 오랜 기다림  
듀엣 (화음) 고백해 내 주님사랑 큰 구름 되어 흘러가  
저 하늘까지 영원히

브릿지)  
여성: 주님 나에게 주신 사랑  
언제라도 고백의 노래 부르면  
남성: 완전하신 사랑은 언제나  
듀엣: 항상 거기에 서 계시는 아버지

후렴> 남자 (여성 화음)  
주님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 그- 오랜 기다림  
고백해 내 주님사랑 큰 구름 되어 흘러가  
저 하늘까지 영원히  
후렴> 듀엣 (여자 화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죠  
고백된 내 주님사랑 큰 구름 되어 흘러가

남자: 주 사랑을  
여자: 고백해-  
남자: 영원토록  
여자: 노래해-  
듀엣: 하늘까지 영원히  
남자: 나 주님만을  
여자: 노래해-  
남자: 고백하리  
여자: 그 사랑을  
듀엣: 하늘까지 영원히

다음은 지난해 발표된 '하늘에 닿은 십자가'의 노랫말이다. 이 곡 역시 작사는 양 목사가, 작곡은 좌 사모가 맡았다.

내 영혼이 어둠 속에  
When I am in my darkest hour  
길을 잃은 어린 양 같아서  
And can't find my way back to  
your path, O Lord  
내가 주님을 의지 합니다  
That's when cry out to you  
cause I know  
나의 손 잡아주소서  
You hear me when I call your name  
내 마음에 소망없어  
There is no hope I have in me  
주님 찾아 애타는 목마름  
You are my all my joy and  
righteousness  
아버지여 채주소서  
Father God fill this heart up  
상한 내 마음 일으키소서  
So I may rise up high on your  
shoulders  
하늘에 닿은  
High up to the sky  
주님의 십자가  
The cross of Christ still stands strong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My hope and wonder forever You will be  
영원한 그 사랑을 온전히 찬양  
Your love demands all my praise for all  
eternity

영원히 찬양해  
Till that day there in the clouds  
하늘나라까지  
Take my life and use it  
주님 너의 갈 길 인도하시네  
For your glory lead us safely in your way

하늘나라까지  
Take my life and use it  
주님 너의 갈 길 인도하시네  
For your glory lead us safely in your way

하늘에 닿은  
to the sky  
주님의 십자가  
The cross of Christ still stands strong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714)222-9792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녹과 증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수질안전, 이온 활성수, 경제성 확보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co.kr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광고 디자인이 필요하세요?

신문광고/ 잡지광고/ 브로셔/ 온라인홍보물

213.814.1342  
213.587.3498  
kp.rodemh@gmail.com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생활개선을 위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디 신촌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FUJITA 카멜레온 커버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식은 살리니! 자동차 연료 커버 \$30

음을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문 모터 시스템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Bass Wood Shutters 전문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식재료 도 · 소매**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찹쌀,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참숯 (바베큐용)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남가주 영적 대각성 집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인 교회들의 영적 대각성과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한국에서 크게 쓰임받는 말씀의 종 윤호균 목사님을 모시고, 각 지역에 영적 대각성 집회를 준비하여 남가주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변영익 목사



## 집회일정

10월 24일(수) 저녁 7시 30분	<b>온누리교회</b> (담임 : 유진소 목사)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el. (818) 834-7000 / www.anconnuri.com	
10월 25일(목) 26일(금) 새벽 5시 30분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 :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323) 913-4499 / www.lafgc.com	
10월 26일(금) 저녁 7시 30분	<b>은혜한인교회</b> (담임 :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6200 / www.gracemi.com	
10월 27일(토) 저녁 7시 30분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 : 한중수 목사)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 윤호균 목사 프로필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총협의회 회장 역임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적각성위원장 역임
- 경기도경찰청교경협의회 총재 역임
- 세계선교협회 총재
- CTS 기독교 TV 특강 및 설교전임강사
- CBS 기독교방송 특강 및 설교전임강사
- 2008년 대한민국 방송설교대상 수상
- 2011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수상
- 2011년 대한민국 참목자 대상 수상
- 화광교회 담임

문의 총 무 : 박세헌 목사 (323)404-3147  
사무국장 : 양경선 목사 (213)255-1725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735-3000 Fax: (213) 735-3111 www.theckc.org



#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 2012년 서부지역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1위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딜러에서는 경험할수조차 없는 다양한 혜택과 감동,  
오늘 푸엔테힐스에서 누리십시오.



+ TAX(STK.050068)  
**\$596**



**골프장 무료 라운딩 쿠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10월 1일-31일)

**평생 무료 세차**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 한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한지 1년이 되셨습니까?
- 미국 현역 군인 이십니까?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 다른 워런티를 사실겁니까?  등록비를 따로 내십니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현재 다른 딜러들의 광고 가격은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푸엔테힐스현대에서는 광고 그대로 드립니다.

### 2012 EQUUS ULTIMATE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66,650 / Residual: \$30,659 / T.D.O: \$5,399  
Plus Comp Rebate /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ER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5개 획득

### 2013 SONATA GLS

**\$121** + TAX(STK.558019)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20,010 Residual: \$12,326  
T.D.O: \$3,999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 2012 GENESIS 3.8L

대형 세단의 편안함을 실속있게 즐기세요.

**\$246** + TAX(STK.203934)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35,210 Residual: \$17,253  
T.D.O: \$3,999 / Plus Comp Rebate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6



Sales Manager 저스틴 길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